

#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승대극회 제65회 봄 정기공연

작품 : 괴테 / 연출 : 김명진 / 기획 : 김영걸

주최 : 송실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장소 : 제1공학관 3층 대학극장

일시 : 2002년 3월 13일(수), 14(목), 15(금) 오후 6시 10분  
3월 16일(토) 오후 2시 / 6시

사람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지요?  
그 욕망을 멈추게 하는 것은  
현실적 상황과 스스로 포기  
또는 자제 뭐.....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연극에 대한 욕망  
모든 극회인은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연극에 대한 욕망을 채웠습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이룬 욕망...  
그 짜릿한 희열.....

65회 봄 정기공연을 위해  
힘써주신 선·후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극회장 / 강예정 (독문과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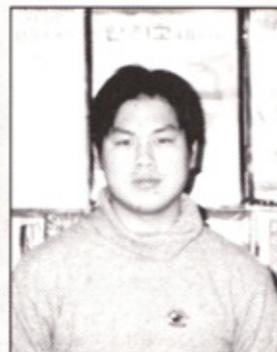
연출 / 김명진 (전자 96)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괴테 원작의 소설이다.  
이 소설은 일기라는 매체를 통해서 주인공의 심리  
상태나 주변인물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난 작품을  
평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다만 이 작품이 "연극으로  
표현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닥쳐진 과제였다.  
삶을 가장 치열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이 아닐까? 어떠한 논리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죽음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자살이 아닐까?

이 두 가지를 비약적으로 보았지만, 진정으로 베르  
테르는 삶과 죽음을 과연 이해한 것일까?

연극으로 올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작품이다. 희곡작품으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각 등장인물들이 객관적으로 표현되지도 않았다. 베르테르가  
투명한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연극을 올리기에 가장 큰 부담이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재미있기도 했다.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주사위의 숫자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베르테르의 '뜨거운 열정'으로 이 작품을 보여주고 싶다.



기획 / 김영걸 (정통전 98)

많은 것이 머리 속을 스쳐 지나간다.  
지난 날의 시간과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그것은 떨어진 것이 아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공존해 있는 것.  
모든 것이 동일한 선상에 있다.  
나의 인생이라는 동일한 선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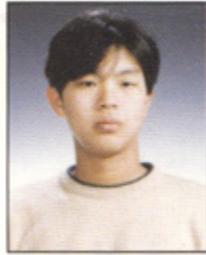
# CAST



연극이란 정직하고 치열한 것  
베르테르 / 이상혁 (정통전 01)



순수함은 유치함을 지속시키는  
재료이고, 유치함은 진실과 통한  
연결통로이다. (PAPER 송옥기와의 인터뷰)  
롯데 / 강예정 (독문과 00)



단세포 동물, 역시 하나밖에 모  
른다. 이것이 끝나면 또 다른  
하나 밖에...  
알베르트 / 윤장한 (경통 98)



4.3  
사나이.아이미 / 최연경  
(정통전 98)



날 놓아줘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아우드밤 / 강대민 (산공 98)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다.  
샷롯데 / 강유미 (중기 00)



행복과 고통은 늘 함께 한다.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와도 고통이  
없었다면 행복을 느낄 수  
없다.  
노파 / 이미나 (경제 01)

# STAFF



무대감독 / 김귀하 (건축 95)



무대미술 / 차상우 (기계 97)



무대장치 / 이세은 (전기 97)



무대장치 / 오민석 (전자 97)



본장 / 안병진 (전자 97)



본장 / 백종예 (국문 98)



섭외 / 서정우 (컴퓨터 96)



조명 / 이경미 (산공 98)



음향 / 박종필 (정통전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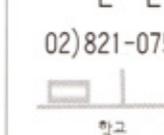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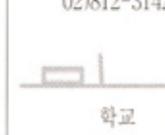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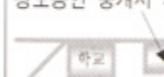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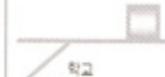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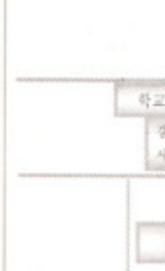
의상 / 이경우 (국문 99)

# 정기공연 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921년 6.13	연극회소연극 "올해연극나폴레옹의 말로" "대미국 노예의 말"		
	1923년 7.7,21	전원극 "우리의 형제" "기계인간" "동백꽃" "십년후" "열셋살년의 수관"		
	1923년 7.28,29	"소인연극" "고아생후원의 주권"		
1	1963년 11/	"태극으로 돌아오다" 황영석 작	이만	전진호
2	1968년 10.28	"Our Town" by Thom Wilder		이태주
3	1969년 10.10	"의자틀" F.이오네스코 작		이태주
4	1969년 10.28,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용연
5	1970년 5.15	"황홀의 생동"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채
6	1970년 10.28,29	"승부의 끝" 사무엘 베케트 작		김영기
7	1971년 5.26,27,28,31 6.1,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전년목 심회" 김조범 작 "당배해독에 대하여" 안문채출작 "황금단지" 푸리우터스작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작		정중희 주정서 한영채 유근배 차영재
8	1974년 11.4,5,11	"사적병의 그림자" 신 오케이스 작		차영재
9	1972년 5.25,26,27	"생일 파티" H. 핀터 작		한영채
10	1973년 5.21,22,23	"미시시피의 결혼" F. 뒤렌마트 작		고요연
11	1973년 10.25,26,27	"반" H.핀터 작 "기도" (소극장) F.아라방 작		김득남 차영재
12	1974년 5.25,26,30	"성도의 사랑들" A.카워 작		정중희
13	1975년 6.9,10,12,13	"파우더의 신적", "도스토예프 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김홍수 안홍순
14	1975년 10.29,30,31	"비더만과 핏비" Max Frish 작		김기열 안홍순
15	1976년 6.1, 2, 3	"인더발" 삼 클로드 빈 이탈리 작		김기열 김득남
16	1976년 10.25,26,27,28	"뽕" 삼 클로드 빈 이탈리 작		김영덕
17	1977년 6.15,16,17,18	"EQUUS" 피터 웨리 작		백정석 김영덕
18	1977년 10.10,11,12,13	"EQUUS" 피터 웨리 작		백정석 김영덕
19	1978년 6.5,6	"Counter Point" by Olof Hartman 작		백정석 김영덕
20	1978년 10.24	"EQUUS" 피터 웨리 작 (대악연극 연극제 참가)		민승기 김영덕
21	1979년 6.18,19	"전강 2979" 김영덕 작		정재호 이병국
22	1979년 9.29, 10.2	"소문" 오대석 작		이정일 황정순
23	1980년 11.5,6	"아니, 인생이란 도대체 누구의 것일까?" 부리미엔 블라크 작		영세범 박양관
24	1981년 6.12,13	"노부인의 평온" F. 뒤렌마트 작		이종규 황정순
25	1981년 11.12,13,14	"달맞이꽃" 김병중 작		전석근 황정순
26	1982년 5.12,13	"카리콜리" A. 카워 작		윤태웅 지속
27	1982년 10.7,8	"헤도우 맥스" M. 크리스토의 작		전희석 황정순
28	1983년 6.20,21	"미시시피의 결혼" F. 뒤렌마트 작		전희석 김영덕
29	1983년 10.7,8	"트레버" by John Bowen 작		이원우 오정일
30	1984년 5.24,25,26	"도끼니" (The Crucible) A. Miller 작		이종규 영세범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31	1984년 10.11,12,13	"변천소" John Stoltenberg 작	차재운	이종섭
32	1985년 5.9,10,11	"반인공" by Maxim Gorky 작	김상현	이종섭
33	1985년 11.21,22,23	"삼부님 우리들의 선부님" 조앤나 콰레스키 작	하승민	송기범
34	1986년 6.4,5,6	"EQUUS" 피터 웨리 작	허성우	하승민
35	1986년 9.11,12,13	"코랄소" E.이오네스코 작	안상준	송기범
36	1987년 6.3,4,5	"한 여왕의 꿈" by W.Shakespeare	권영진 이준석	오정일
37	1987년 9.10,12,13	"오래" A. 카워 작	오정일	박경근
38	1988년 6.2,3,4	"새벽은 짧게 새벽은 길게" 이아영 작	이종일	오정일
39	1988년 10.6,7,8	"안내여? 맞내여!" by Dario Fo	권태수	송근호
40	1989년 5.25,26,27	"늬네" 윤조범작	전승범	안진우
41	1989년 10.10,17,18	"대성당의 살인" by T.S. Eliot	오정일	이만
42	1990년 5.24,25,26	"안티고네" 장 아누이 작	권태수	이준석
43	1990년 8.30,31,9.1	"한씨연대기" 황석영 작	전승범	이영민
44	1991년 5.30,31,6.1	"생일 파티" H. 핀터 작	남재우	권순애
45	1991년 9.5,6,7	"남개" 이상 작	양현준	권영진
46	1992년 3.19,20,21	"우린 나팔을 불었다" 김상필 작	임경희 정현영	홍은영
47	1992년 9.17,18,19	"공간의 예수" 김지하 작	홍석환	송근호
48	1993년 5.20,21,22	"세일스맨의 죽음" by A. Miller	황영석	박원상
49	1993년 10.21,22,23	"내시,특시" 김홍수 작	소창호 이영성	박원상
50	1994년 5.26,27,28	"굿 닥터" 남시미연 작	정석용	소창호
51	1994년 9.29,30,10.1	"안티고네" 소포클레스 작	소창호	박원상
52	1995년 5.25,26,27	"상지숙의 여자" 김유미 작	한승욱	유성환
53	1995년 10.12,13,14	"나의 리얼오랜지나무" JM 허스콘블로스 작	김은성	남재우
54	1996년 3.7,8,9	"지상" 김원욱 작	한석용	손미리
55	1996년 9.5,6,7	"목양이라는 이름의 전자" 대대시릴리움스 작	조태희	이종희
56	1997년 3.13,14,15	"우리집내" 손민 외일디 작	신하영	서수경
100주년	1997년 10.8,9,16,17	"대성당의 살인" by T.S. Eliot (출판 100주년 기념 공연)	영세범	정중희
57	1998년 3.18,19,20	"살인놀이" by E. 이오네스코	조태희	권태리 이정미
58	1998년 11.26,27,28	"물고기의 축제" 유미리 작	윤정현	조태희
59	1999년 3.11,12,13	"사랑은 저마다 모두 행복합니다" 이정원 작	강대연	이정원
60	1999년 9.2,3,4	"세상남기" 이정원 작		이정원
61	2000년 5.4,5,6	"아름다운 시민" 정진 작	이종재	이경희
62	2000년 8.31,9.1,2	"소나기" 황순원 작	김귀하	정정숙
63	2001년 3.29,30,31	"민간에 대한 예의"	이종재	서정훈
64	2001년 9.6,7,8	"바라보다 넘어가다"	서정우	김희진

# 도와주신 분들

어디든 배달 가능합니다. 명진 슈퍼 02) 8178-8371	년 물과 여자가 왜 미필하는지, 윤세나 미용실	삼의 여유 행인과 나룻배 02)812-5123	추억여행.... <b>소주방</b>	테너우스
우리집 분식	카리스	배고플땐 외쳐여 칭~~풍~~원	숙가마	맛의 전당 한성분식 02)814-2331
한식분식 전문점 대상식당 02) 825-9460	해바리기 02)813-5874	옛친구 02) 813-4289	마포 솔볼갈비	이모네이모네이모네 이모네이모네이모네
호돌이네 02) 814-9361	<b>City</b>	즐거	Victory 탁구장 02)812-1564	Rok 피시방 02) 814-0625
숯불 바베큐 전기구이	들부세	불부힐	<b>요모조모</b>	혜성분식
gezons 피시방 02)822-0999	당구는 필수입니다 <b>green camp</b>	호박속의 반딧불 02)823-6414	홍부네집 02)822-7045	승실상회
(생고기 전문점) 승실 먹거리	오페라 노래연습장	스타게터가 예측인 <b>이태리식당</b>	현대문화사 대부분의 사람이 가는곳	발해
쿠폰제로 승실인에게 환원하는 맛있는 중국집 <b>향림원</b>	<b>메트로</b> 호프 소주 흑맥주차 	승실인과 함께한 술집 큐피드 	정통 돈까스의 참맛 <b>스톤타운</b> 02)821-0754 	마드브슈(미용실) 02)812-3142 
알뜰한 사람들은 숨어 있는 곳을 잘 찾는다. 강남시장의 복사와 계본집 선진	아직도 땅 못구했니. 강남시장으로 가봐. 이 아저씨가 도와 줄꺼야. 상도공인 중개서 사무소 	4월 부터 금요일날 매우 특별해 집니다. <b>꽃을 든 남자</b> 	어머니 이렇게 주고도 장사되어? 강남시장 대림스넥	인끼 빵 맛도 빵 양도 빵 강남시장 고모네 02)825-1058
<b>유쾌한 노래방</b> 시간당 5000 더 이상 싼데 있으면 나와봐!!!! 			승실인이야!! 자 이제 우리도 꽃미남 꽃미녀가 되자. 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앞에 있으니, 인기 연예 있습니다. <b>아로마 스킨케어</b> 02)813-3006 	

